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의 군집분석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분석*

김영근(金泳根)**

최보금(崔寶今)***

박경선(朴敬宣)****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대인갈등 대처행동 특성을 성인애착, 부모애착 및 자아분화의 군집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431명의 자료를 사용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 결과 안정집단(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 모두 높음)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았으며, 이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지배적, 통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 자아분화 고집단(성인애착 낮음, 부모애착과 자아분화 높음)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지배적 대처행동을 주로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 자아분화 저집단(성인애착 높음, 부모애착과 자아분화 낮음)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안정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회피적, 지배적, 통합적 대처행동을 모두 사용하였다. 불안정집단(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 모두 낮음)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회피적, 지배적 대처행동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논의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대인갈등 대처행동

* 본 논문은 2017년 2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제1저자,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 ykkim@inje.ac.kr

*** 공동저자,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가족상담복지학 학사졸업

**** 공동저자,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가족상담복지학 학사졸업

I. 서론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수많은 타인들을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각 개인은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욕구를 채워 나가므로 타인과의 관계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권석만, 2004)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대인관계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이형득, 1982). 정남운과 이장호(1998)의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는 개인의 내적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학업, 진로 등의 문제조차 그 이면에는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불안과 우울, 소외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비행, 중독 등 사회적 문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김영미, 2006). 그러므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안전한 관계 속에서 타인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Fung & Yeung, 2009).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인관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인들이 설명되어 질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이운기, 2006). 특히 초기 성인기에 도달하는 동안 형성되는 부모애착은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Bowlby(1973)는 애착을 생애 초기 가까운 인물과 형성하게 되는 강한 정서를 수반하는 관계라고 하였는데, Bowlby의 애착이론(1988)에 따르면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양육자는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게 되고, 영아는 이러한 초기 경험을 통해 양육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이해, 기대 및 각본으로써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킨다. 이렇듯 부모와의 초기 경험은 영아의 성격, 대인관계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후에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최연화, 2012). 대학생 시기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관계를 접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때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기반으로 형성된 내적 표상이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불안과 혼란을 잘 극복하게 만드는 자원이 된다. 여러 발달적 관점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유능감이 높으며 심리적 문제는 적은 반면(Rubin, Dwyer, Booth-LaForce, Kim, Burgess, & Rose-Krasnor, 2004),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보였고,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및 불안은 높은 증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Kenny, 1987). 즉,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개인이 성장하는 동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처음 접하는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안전기지(secure base)의 역할을 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정서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제공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및 사회적, 지적 능력의 발달까지 영향을 미친다(조수진, 2000). 이는 곧 애착의 개념이 생애 초기의 영아와 주 양육자와의 유대관계에서 나아가 전 생애에 걸쳐 타인과 형성하는 정서적인 결합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Cassidy, 2001).

아동기에 부모와 형성된 애착은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생 시기에 동료,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성인애착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된다(신미, 2006). 성인애착이란 어렸을 때 주 양육자와 관계를 맺던 것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구, 연인 등의 주변사람에게 애착의 대상이 전환되는 것으로, 대학생들에게는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타인과의 애착을 말한다(안유진, 2015). 성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특정한 친구나 이성 관계에서 애착을 형성하는 경험을 한다(Hazan & Shaver, 1987). 이때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된 대학생들은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과도 애착을 잘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장휘숙, 1997), 어렸을 때 주 양육자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 및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대학생일수록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 불안해하거나 회피적인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한기백, 2013).

하지만 아동의 어릴 적 부모애착이 성인기의 애착유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의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나선영, 안명희(2011)에 의하면 부모와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 것과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서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애착이 유지되고 활성화되는 데에는 성장 환경이나 주변사람 등 여러 가지 내, 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은지(201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애착과 낭만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낭만애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또래 애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몇 선행 연구들은 부모애착은 성인애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니며, 간접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을 설명하는 데에 자아분화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양수진과 이정운(2012)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가 완전히 매개한다고 하였다. 자아분화는 Bowen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개인이 원가족과의 정서적인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잘 분리시키며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아분화는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성장 후 그들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명옥, 하정희, 2007).

Hartman(1981)은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고 안정된 정서적 상태를 보임과 동시에 자아를 잘 유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규련(2012)은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와 감정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여, 감정적으로 자제력을 잃지 않고 타인과 친밀한 접촉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며, 백경하(2003)는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적절성 등 관계 자체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아분화는 독립적이면서도 타인과의 연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문자, 정혜정, 이선헌, 전영주,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은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들과 함께 주목되고 있는 자아분화 또한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박윤옥(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불안정 애착이 형성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양수진(2010)의 연구를 통해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는 연관성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나선영, 안명희(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은 성인애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성인애착 유형은 양육자와의 애착 유형과 다를 수도 있으며, 특히 이 과정을 중재하는 변인이 있다면 더욱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있다. 또한 서미경(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렸을 때 불안정애착을 형성하였지만 현재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 한 결과, 현재의 안정애착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로 긍정적인 관계경험과 자기성찰을 꼽았다고 하였으며, 어렸을 때 불안정애착을 형성하였더라도 외상(trauma) 및 우울 같은 심리적 취약성을 겪은 사람들은 현재 불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애착 및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도 성인애착이 낮을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애착 및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도 성인애착이 높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 수준을 다르게 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각 군집의 유형에 따라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Britton(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의 대인관계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현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애착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애착 경험 이후 가까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애착 및 자아분화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두려움을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이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지를 대표적인 변인들로 설정하였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정 애착으로부터 기인되는 대인관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친밀감이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감이 상실될 것이라는 두

려움 없이 타인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tone, 1973). Erikson(1959)은 대학생이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 시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이며, 동시에 성인 초기는 자의식이 고도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소속감이 자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박경희, 2009). 또한 발달심리학자 Shaffer(1996)는 성인초기에 친밀함을 형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력함을 초래한다고 하였다(정유정, 2005). 이 뿐만이 아니라 친밀함이 결핍되면 우울이 유발되고, 관계에서 의욕적이지 못하며, 분리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된다(Descutner & Thelen, 1991).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적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는 친밀함을 유지하는데 두려움, 불안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은 자신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협받고 있거나 위험한 상황일 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백남희, 2003). 즉, 누군가와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동시에 심리적 안전을 위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지만, 이 욕구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경계하게 된다(Stone, 1973). 이는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박장희, 조운주, 2006).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신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고(강은숙, 2005),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Descutner & Thelen, 1991) 자신을 좋지 않게 봄으로써 실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Marks & Gelder, 1966)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위협요소들이 계속 작용될수록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더욱 어려워져서 결국 사회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정유정, 2005). 친밀감과 관련하여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타인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기개방에 두려움을 많이 보이는 집단일수록 타인과의 친밀감이 낮고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Mikulincer & Nachshon, 1991).

한편,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함에 따라 대인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항상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시켜주지 않으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박란희, 2015). Ting-Toomey(1994)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이 특정 문제에 가지는 기대, 처리과정 혹은 결과가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자신 혹은 타인의 행동이 서로를 억압시키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갈등 자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갈등을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선택된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란희(2015)는 이러한 갈등대처 행동

을 개인이 처한 갈등상황에서 선호하는 반응이나 그 사람만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모든 사람은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처할 때 일반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 경향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평소 특정 대상 혹은 집단 안에서 갈등을 처리할 때 드러내는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기능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며,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은 서로간의 상호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Wilmot & Hocker, 2001). 또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질, 성격 및 관계유지에 따른 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Creasey & Hesson-McInnis, 2001),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가지는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의 조합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군집분석을 통한 분류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 자아분화, 성인애착 변인의 조합을 통해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군집 유형별로 나타나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 및 이에 따른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경상, 충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6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회수한 설문지 중 무응답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3부와 결측치가 있는 4부를 제외한 43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학생이 130명(30.2%), 여학생이 301명(69.8%)이었으며, 1학년이 147명(34%), 2학년이 83명(19.3%), 3학년이 102명(23.7%), 4학년이 99명(23%)이었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20분 정도였다. 연령의 범위는 20살부터 28살로 평균연령은 22세, 표준편차는 1.7세였다.

2. 측정 도구

1) 성인애착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Brennan 등(1998)이 성인의 애착을 불안과 회피

로 구분하고자 제작한 ECR(Experiences Close Relationship)을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ECR-R(Experiences Close Relationship-Revised)로 개정하였으며, 이를 한국의 김성현(2004)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불안애착 척도와 회피애착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안애착 척도와 회피애착 척도는 각각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1점에서 7점까지(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애착불안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또는 거절당하는 것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애착회피는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꺼림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에서 불안애착 16문항과 회피애착 7문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고, 불안애착 2문항과 회피애착 11문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부정적으로 제시된 문항은 점수의 측정에서 역산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잘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불안애착은 .91, 회피애착은 .94로 나타났으며,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α 계수는 불안애착은 .89, 회피애착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α 계수는 불안애착은 .93, 회피애착은 .90으로 나타났다.

2) 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옥정(1998)이 수정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는 원래 부, 모 각각 25문항과 또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를 제외하고 부모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상호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의 질 9문항과 소외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상호신뢰감은 걱정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부모가 나의 판단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며, 부모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질은 부모가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외감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서 외롭거나 좌절을 느끼는 것이다. 이 척도에서 상호신뢰감 7문항과 의사소통의 질 8문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고, 상호신뢰감 3문항, 의사소통의 질 1문항과 소외감 6문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부정적으로 제시된 문항은 점수의 측정에서 역산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잘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 부모 애착척도 α 계수는 아버지가 .89, 어머니가 .87로 나타났으며, 옥정(1998)의 연구에서 α 계수는 아버지가 .93, 어머니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α 계수는 .93(상호신뢰감=.92, 의사소통의 질=.86, 소외감=.69)으로 나타났다.

3) 자아분화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기본으로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인지 분화 7문항, 자아의 통합 6문항, 가족투사 6문항, 정서적 단절 6문항 그리고 가족퇴행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서 정서인지 분화 1문항, 자아의 통합 4문항, 정서적 단절 1문항 그리고 가족 퇴행 7문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고, 정서인지 분화 6문항, 자아의 통합 2문항, 가족투사 6문항, 정서적 단절 5문항 그리고 가족 퇴행 4문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부정적으로 제시된 문항은 점수의 측정에서 역산되었다.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 α 계수는 .90(정서인지 분화=.76, 자아의 통합=.74, 가족투사=.77, 정서적 단절=.78, 가족퇴행=.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α 계수는 .90(정서인지 분화=.77, 자아의 통합=.68, 가족투사=.85, 정서적 단절=.84, 가족퇴행=.93)으로 나타났다.

4)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Descutner와 Thelen(1991)이 현재 친밀한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of-Intimacy Scale: FIS)를 한선영(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이 되는 가까운 관계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를 묻는 30개 문항과 과거 자신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이 척도에서 현재 및 미래의 대인관계 문제 영역 중 16문항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문항들은 점수의 측정에서 역산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Descutner와 Thelen(1991)의 연구에서 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으며, 한선영(2005)의 연구에서 α 계수는 .94(현재 또는 미래 대인관계 두려움=.95, 과거 대인관계 행동패턴=.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α 계수는 .94(현재 또는 미래 대인관계 두려움=.93, 과거 대인관계 행동패턴=.81)로 나타났다.

5) 대인갈등 대처행동

대인갈등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Ting Toomey와 Oetzel(2001)의 갈등상황에서의 '체면 유지행동(Facework Behaviors)' 척도를 김영옥(2008)이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회피적 대처행동 13문항, 지배적 대처행동 21문항 그리고 통합적 대처행

동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회피적 대처행동은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는 유형이다. 지배적 대처행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려 하거나, 비협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대처행동은 자신과 타인의 주장 모두 수용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윈만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 본 척도에서 이 3개의 하위요인은 11개의 세부행동요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회피적 대처행동은 양보, 침묵, 제3자 개입으로, 지배적 대처행동은 공격, 방어, 감정표현으로, 통합적 대처행동은 사과, 사적인 협의, 문제해결, 평정심 유지하기, 존중으로 나누어진다. 김영옥(2008)의 연구에서 각 하위행동요인들의 α 계수는 .57~.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α 계수는 .84(양보=.63, 침묵=.70, 제3자 개입=.80, 공격=.86, 방어=.75, 감정표현=.37, 사과=.67, 사적인 협의=.59, 문제해결=.87, 평정심 유지하기=.64, 존중=.8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인애착, 부모애착 및 자아분화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군집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및 대인갈등 대처행동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군집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어떠한 대인갈등 대처행동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변인들 간 상관분석 및 동질성 검증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및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하위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먼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상관계수는 $r = .38(p < .001)$, 부모애착과 자아분화는 $r = .76(p < .001)$, 성인애착과 자아분화는 $r = .32(p < .0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부모애착과의 상관계수는 $r = -.37(p <$

001), 성인애착과는 $r = -.61(p < .001)$, 자아분화와는 $r = -.39(p < .001)$ 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하위유형 중 회피적 대처행동과 성인애착은 $r = -.08(p < .05)$, 자아분화와는 $r = -.12(p < .05)$ 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지배적 대처행동의 경우 부모애착과는 $r = -.23(p < .001)$, 성인애착과는 $r = -.13(p < .01)$, 자아분화와는 $r = -.45(p < .001)$ 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통합적 대처행동의 경우 부모애착과의 상관계수가 $r = .25(p < .001)$, 성인애착과는 $r = .15(p < .01)$, 자아분화와는 $r = .35(p < .001)$ 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1> 측정 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성인애착	—						
2. 부모애착	.38***	—					
3. 자아분화	.32***	.76***	—				
4.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61***	-.37***	-.39***	—			
5. 회피적 대처행동	-.08*	.09	-.12*	.16**	—		
6. 지배적 대처행동	-.13**	-.23***	-.45***	.17***	.18***	—	
7. 통합적 대처행동	.15**	.25***	.35***	-.21***	.19***	-.23***	—

*p < .05, **p < .01, ***p < .001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성별과 학년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적, 지배적, 통합적 대처행동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학년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3학년과 4학년만이 차이를 보였고, 3학년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 가장 적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경우 지배적, 통합적 대처행동에서는 학년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회피적 대처행동에서 1학년과 4학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학년의 회피적 대처행동 평균 점수가 높았다.

2.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 분석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에 대해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의 수를 나누었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3-4개의 군집이 의미 있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 중 4개의 군집이 집단 간 대비되는 양상의 결과가 나오며,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성을 하였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참여자가 4개의 군집 중 어느 집단에 가장 잘 해당되는지를 최종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군집 1은 152명(35.3%), 군집 2는 110명(25.5%), 군집 3은 93명(21.6%) 그리고 군집 4는 76명(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집

1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군집 4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각 군집 별 유형 분포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각 군집 별 유형 분포

군집유형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빈도(비율)	152명(35.3%)	110명(25.5%)	93명(21.6%)	76명(17.6%)

군집 1은 성인애착, 부모애착과 자아분화 수준이 모두 높았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애착과 분화가 잘 된 자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안정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었으며 자아분화 수준 또한 높지만, 낮고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애착·자아분화 고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군집 2와 반대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낮으며 미분화된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성인애착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성인애착, 부모애착과 자아분화 수준 모두 4개의 군집유형 중 가장 낮았다. 따라서 이 집단은 낮은 수준의 애착과 미분화된 자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불안정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군집의 형태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되었다.

<표 3> 군집 별 표준화 점수

	군집1 (안정집단)	군집2 (부모애착·자아 분화 고집단)	군집3 (부모애착·자아 분화 저집단)	군집4 (불안정집단)
성인애착	.79	-.71	.48	-1.14
부모애착	.74	.35	-.46	-1.43
자아분화	.80	.39	-.75	-1.26

[그림 1]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 프로파일

3. 각 군집 별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와의 차이 평균

각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각 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차이를 설명하고자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애착, 부모애착 및 자아분화 모두 ANOVA 통계값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cheffé 사후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애착의 경우 군집 1, 군집 3, 군집 2, 군집 4 순으로 높지만, 부모애착과 자아분화의 경우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3가지의 군집 변인 모두 안정집단(군집 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정집단(군집 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군집 3)의 경우 성인애착에서는 2번째로 높게 나타났지만, 부모애착과 자아분화 수준에서는 3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군집 별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의 평균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군집별 부모애착, 성인애착, 자아분화의 평균 차이

	1 M(SD)	2 M(SD)	3 M(SD)	4 M(SD)	F	사후분석
성인애착	5.34(.48)	4.11(.47)	5.08(.56)	3.76(.47)	243.24***	1>3>2>4
부모애착	4.27(.38)	3.97(.43)	3.35(.55)	2.62(.54)	244.71***	1>2>3>4
자아분화	4.07(.28)	3.86(.27)	3.27(.27)	3.01(.38)	288.23***	1>2>3>4
N	152	110	93	76		

***p < .001

주. 1=안정집단, 2=부모애착·자아분화 고집단, 3=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 4=불안정집단

4. 각 군집 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차이

각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갈등 대처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정집단과 부모애착·자아분화 고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안정적인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을 형성하며 자아분화가 잘 된 유형의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애착과 자아분화가 높은 집단(군집 2)에 비해 성인애착이 높은 집단(군집 3)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낮게 나온다는 결과를 통해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애착을 잘 형성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의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갈등 대처행동에서는 불안정집단과 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의 경우 지배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안정집단의 경우 4개의 집단 중에서 통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불안정집단의 경우 4개의 집단 중에서 통합적 대처행동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적 대처행동은 4개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군집 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차이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각 군집 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변량분석평균

	1 M(SD)	2 M(SD)	3 M(SD)	4 M(SD)	F	사후분석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2.06(.43)	2.63(.53)	2.37(.48)	2.83(.55)	51.43***	2,4>3>1
대 처 행 동	회피	2.90(.47)	3.00(.50)	2.90(.47)	2.99(.61)	1.20
	지배	2.40(.38)	2.46(.40)	2.67(.42)	2.70(.47)	14.45*** 3,4>1,2
	통합	3.83(.40)	3.72(.40)	3.59(.36)	3.55(.46)	10.84*** 1>2,3
N	152	110	93	76		

***p < .001

주. 1=안정집단, 2=부모애착·자아분화 고집단, 3=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 4=불안정집단

5.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에 따른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특성

각 군집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어떠한 대인갈등 대처행동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안정집단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지배적 대처행동($\beta = .23, p < .01$)과 통합적 대처행동($\beta = -.25, p < .01$)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자아분화 고집단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지배적 대처행동($\beta = .30, p < .01$)을 사용하였다. 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에 따라 회피적 대처행동($\beta = .35, p < .01$), 지배적 대처행동($\beta = .21, p < .05$) 및 통합적 대처행동($\beta = -.28, p < .01$)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안정집단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행동($\beta = .23, p < .05$)과 지배적 대처행동($\beta = .28, p < .05$)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군집이 갈등 상황에서 지배적 대처행동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의 경우 모든 대인갈등 대처행동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군집 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특성

	회피적			지배적			통합적		
	R^2	$B(\beta)$	F	R^2	$B(\beta)$	F	R^2	$B(\beta)$	F
1	.00	.04(.04)	.24	.05	.20(.23)**	8.05**	.06	-.23(-.25)**	9.71**
2	.00	.00(-.00)	.00	.09	.22(.30)**	10.46**	.00	-.01(-.02)	.02
3	.12	.34(.35)**	12.52**	.04	.18(.21)*	4.12*	.08	-.21(-.28)**	7.59**
4	.05	.26(.23)*	4.11*	.08	.24(.28)*	6.32*	.01	.00(.03)	.07

*p < .05, **p < .01
주. 1=안정집단, 2=부모애착·자아분화 고집단, 3=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 4=불안정집단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부모애착 및 자아분화의 수준에 따른 개인차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애착, 부모애착 및 자아분화의 조합을 통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군집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어떠하며, 이에 따라 대인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집단은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 집단이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도 4개의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며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두려움을 잘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이후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양지운, 2006)와 일치한다. 안정집단은 대인갈등 상황에서 지배적 대처행동과 통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통합적 대처행동과 같은 건설적인 갈등 대처행동을 사용한다는 박희경(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지만 앞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안정집단이 대인갈등 상황에서 지배적 대처행동 또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기주장 능력을 향상시킴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안정집단의 경우 이러한 자기주장적 행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대한 교육적 방법 및 관련 프로그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애착·자아분화 고집단은 부모애착과 자아분화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성인애착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은 4개의 군집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과 자아분화 수준이 높더라도 현재 관계를 맺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한다면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및 자원이 부족하여 갈등상황에서 타협과 같은 탄력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연구(Creasey & Hesson-McInnis, 2001)와 일치한다. 또한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과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부적상관이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신지옥, 2006; 차정은, 2016)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애착·자아분화 고집단의 경우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타인과 더욱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타인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운 감정을 중심으로 해결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불안정한 성인애착의 모습을 이해하고 현재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애착·자아분화 고집단은 대인갈등 상황에서 지배적 대처행동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개의 집단 중 유일하게 하나의 대처행동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경우 갈등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처행동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통합적 대처행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인갈등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은 성인애착은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부모애착과 자아분화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은 4개의 군집 중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과 자아분화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성인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비교적 잘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애착을 잘 형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감이 상실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타인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강수진, 최영희, 2011; Lopes, Gormley, 2002; 아영아, 이명희, 2016)와 일치한다. 부모애착·자아분화 저집단은 대인갈등 상황에서 회피적, 지배적, 통합적 대처행동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경우 갈등 상황, 갈등을 겪는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갈등 대처행동을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갈등 대처행동 경향성을 이해하고,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불안정집단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자아분화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인 집단이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수준도 4개의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며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두려움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애착의 하위유형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반면, 자아분화를 잘 형성할수록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최연화, 2012)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부모애착 및 자아분화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부적상관을 나타낸다는 나보영(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불안정집단은 대인갈등 상황에서 회피적, 지배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건설적인 통합적 대처행동은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대처행동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4개의 군집 중 갈등 상황에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집단이 회피적, 지배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데에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개방해야 하는 두려움, 거절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이 자신에게 실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박장희, 조윤주, 2006; 나보영, 2008)를 지지한다. 따라서 불안정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애착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변화시키거나 긍정적인 애착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색함으로써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인갈등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른 군집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 부모애착, 자아분화의 군집분석을 통해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최근까지도 애착 및 자아분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의 조합을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별로 분류하여 진행을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애착과 자아분화의 형성 및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다룰 때 각 특징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각 집단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 및 대인갈등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안정집단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제일 낮았으며, 이에 따라 갈등상황에서 지배적 대처행동과 통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였다. 반면, 불안정집단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제일 높았으며, 이에 따라 갈등상황에서 회피적 대처행동과 지배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였다. 단, 모든 군집에서 공통적으로 지배적 대처행동을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관계에서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갈등상황에서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며, 비협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갈등상황에서 더욱 기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개인이 느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에 따라 대인갈등 대처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접근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부적절한 대처행동은 다시 개인의 대인관계에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갈등상황에서 드러나는 역기능적인 대처행동으로부터 효과적인 대처행동으로의 수정을 돕는 교육방법 및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 회수 결과 남학생 130명, 여학생 310명으로 남녀 성비가 균등하지 않았으며, 전학년의 비율 또한 균등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의 성비를 고르게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애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및 대인갈등 대처행동을 보이는 과정에서 개인의 발달과정, 경험 및 성격 특성 등 개인차의 변인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으로는 이러한 점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집단의 동질성만을 검증하였으며, 각 학년에 대한 연령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차 변인을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룬 대인갈등 상황에서의 대처행동 유형은 회피적, 지배적, 통합적 대처행동의 3가지 유형이었다. 이는 갈등상황 시 보일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 것은 아니며,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담이나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내담자가 실제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 방식을 살펴보는 질적 자료 수집을 통해 내담자의 행동을 수정하는 개입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설문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인갈등 대처행동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수진, 최영희(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양식과 사회 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18(3), 53-68.
- 강은숙(2005). 남녀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사회불안이 커플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권석만(2004).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성현(2004).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영미(2006). 고교생의 집착과 대인관계문제가 친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영옥(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나보영, 정혜정(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분화 및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한국가정관리학회**, 26(2), 155-168.
- 나선영, 안명희(2011).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31-355.
- 박경희(2009). 대학생용 대인관계조화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박란희(2015). 한국대학생과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대인갈등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박윤옥(2013).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분노표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박장희, 조윤주(2006).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4(7), 113-124.
- 박희경(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백경하(2003). 원가족에서의 자아분화가 지도력 및 대인관계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백남희(2003). 청소년의 신체상, 자의식, 역기능적 신념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서미경(2014). 애착의 변화: 획득된 안정애착과 현재의 불안정애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신미(2006). 부와 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여대생의 성인애착.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신지옥(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아영아, 이명희(2016).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4(1), 89-106.
- 안유진(2015). 부모애착, 자아분화수준,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양수진(2010). 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양수진, 이정운(2012).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4), 1921-1935.
- 양지윤(2006). 애착유형, 자존감, 자기침묵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인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명옥, 하정희(2007).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19-535.
- 이운기(2006).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형득(1982).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장휘숙(1997). 애착의 전 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 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정남운, 이장호(1998). 대인관계적 상보성과 상담성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95-119.
- 정문자, 정혜정, 이선희, 전영주(2011). **가족치료의 이해 2판**. 서울: 학지사.
- 정유정(2005). 대학생의 자기노출과 이성관계 만족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조수진(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주은지(2011).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낭만 애착: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8), 161-186.
- 차정은(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최규련(2012). **가족상담 및 치료**. 서울: 공동체.

- 최연화(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 한기백(2013).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성인애착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4(5), 3065-3087.
- 한선영(2005). 부모 애착과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 *Family therapy* (pp. 42-90). New York, NY: Gardner Pres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NY: Basic Books.
- Britton P. C., & Fuendeling J. M. (2005). The relations among varieties of adult attachment and the components of empath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5), 519-530.
- Cassidy, J. (2001). Truth, lies and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2), 121-155.
- Creasey, G., & Hesson-McInnis, M. (2001). Affective responses, cognitive appraisals, and conflict tactics i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1), 85-96.
- Descutner, C. J., & Thelen, M. H.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 of intimac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3(2), 218-22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Fraley, R. C., Brennan, K. A., & Waller, N. G.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Fung, H. H., Yeung, D. Y., Li, K. K., & Lang, F. R. (2009). Benefits of negative social exchanges for emotional closenes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5), 612-624.
- Hartman, A. (1981). Bowen family system: Theory and practice. In E. R. Tolson, & W. J. Reid (Eds.). *Models of family treatment*.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zan, C. & Shaver, P. R. (1987). Minding the close relation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3), 224-240.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Lopez, F. G., & Gormle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hip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3), 355-364.
- Marks, I. M., & Gelder, M. G. (1966). Common ground between behaviour therapy and psychodynamic methods. *Th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39*(1), 11-23.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321-331.
- Rubin, K. H., Dwyer, K. M., Booth-LaForce, C., Kim, A. H., Burgess, K. B., & Rose-Krasnor, L. (2004).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4), 326-356.
- Stone, W. F. (1973). Patterns of conformity in couples varying in intim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3), 413-419.
- Ting-Toomey, S. (1994). *The challenge of facework: Cross-cultural and interpersonal issue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ing-Toomey, S., & Oetzel, J. G. (2001). *Managing intercultural conflict effectively*. Thousand Oaks, CA: Sage.
- Wilmot, W. W., & Hocker, J. L. (2001). *Interpersonal conflict*. New York, NY: McGraw-Hill.

* 논문접수: 2018년 5월 4일 / 1차 심사 2018년 6월 14일 / 2차 심사 2018년 8월 1일 / 게재승인 2018년 9월 7일

* 김영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서심리와 상담, 치료적 관계, 외상, 집단상담, 상담의 과정 및 성과이다.

* E-mail: ykkim@inje.ac.kr

* 최보금: 주전공으로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가족상담복지학을, 복수전공으로 상담심리치료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bg0096@naver.com

* 박경선: 주전공으로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가족상담복지학을, 복수전공으로 상담심리치료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rudehf02@naver.com

Abstract

Analysis of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luster Analysis of Parental Attachment, Adult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Kim, Youngkeun**

Choi, Bogeum***

Park, Kyung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conflict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fear of intimate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s through cluster analysis of adult attachment,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For thi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431 college students and classified into 4 groups. As a result, the stable group (adult attachment,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are all high) had the lowest level of fear of intimate relationships, accordingly using dominate and integrated response actions in conflict situations. The high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group (low adult attachment, high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had the high level of fear of intimate relationships, accordingly using dominant response actions in conflict situations. For the low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group (high adult attachment, low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fear of intimate relationships was shown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stable group, accordingly using evasive, dominant and integrated response actions in conflict situations. The unstable group (adult attachment,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are all low) had the highest level of fear of intimate relationships, accordingly using evasive and dominant response actions in conflict situ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scussion point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Key words: adult attachment, parental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fear of intimate relationships, interpersonal conflict coping behavior

* This study was based on the fruit of Capstone Design subject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7.

** First author,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 Co-author, Graduate, Department of Life Counseling and Welfare, Inje University

**** Co-author, Graduate, Department of Life Counseling and Welfare, Inje University